

[전체공지]

-특이 사항 없음 -

[코로나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 1.성당내 마스크 필수 착용
 - 2.표시된 좌석에만 앉기
 - 3.주보를 인쇄하여 배부하지 않고, 단체 카톡 방에 공지
 - 4.코로나 전염 예방 관련 이유로 'LIVE방송미사' 참례 가능
 - 5.방송미사 참례시 전례봉사일정 조정을 위해 전례분과장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 마스크 판매 중(개당 \$10,수입금은 각 공동체 재정보조로 사용)

[잭슨빌]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고리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인즈빌]

-특이 사항 없음-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무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160	\$600	감사헌금 \$500	\$1,260
잭슨빌	\$460	\$2,300	-	\$2,760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진모 펠릭스 (904) 909-5080 성당 (904) 573 - 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공동체	
주일 미사	매주 일요일 10시30분	주일특전미사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첫째, 셋째 금요일 저녁 8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전 미사 후	-	-
성시간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미사 전	주일학교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저녁 7시	예비자 교리	-
사목회의	둘째 주 주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전
사목회	총무 이토마스 (904) 416-7437 /김스테파니아 (904) 613-9245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352) 727-0452

www.stfccm.org
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제 부모님을 잘 알고 있는 교우분들 가운데 어느 분이 말씀하십니다. “신부님은 아버지를 참 많이 닮으셨네요.” 옆에 있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은 어머니를 꼭 빼닮으셨어요.” 저는 이 두 분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였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닮으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태생적으로 닮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한 가정을 함께 책임지며 살아가는 동안 습관, 식성, 생활 방식, 가치관 등을 공유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까지도 비슷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단 제 부모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당 주임 신부 시절, 수많은 부부를 바라보며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라는 말이 떠오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닮은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유한한 사랑을 하는 이들이 서로 닮는데,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영원무궁토록 무한한 사랑을 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세 위격은 서로의 존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하였듯이 사랑은 본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상대방을 자기 방식대로 끌어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잘 간직하도록 애써 줍니다.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일치하시는 가운데서도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외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사랑의 신비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매 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재호 루카 신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제1독서] 탈출기 34,4ㄱㄷ-6.8-9

주님은,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화답송] 다니 3,52ㄱ.52ㄷ.53.54.55.56(◎52ㄴ)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제2독서] 코린토 2서 13,11-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복음] 요한 3,16-18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1독서	제2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6/6)	임윤미 플로라	백현 가브리엘	백준 빈첸시오	-
	잭슨빌 (6/7)	이교순 카타리나	송재민 하상바오로	김현희 아네스	김정숙 켄마
다 음 주	게인즈빌 (6/13)	최건화 안젤라	성충현 베드로	남궁은미 루치아	-
	잭슨빌 (6/14)	윤미임 데레사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렉시 베로니카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게인즈빌	681	96	656	606
잭슨빌	81	342	175	78